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쨌든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판처: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37호
서기 2001년 10월 3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공심에서 한생각 일어날 때 '길' 열려

참되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요

문 사람이 바르고 참되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부자로 살면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부자로 살면서 자기 뱃속만 채우고 어려운 사람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자신이 가난하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어렵다고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 자신의 삶을 살기에 도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사람답게 살면서 이 험난한 고(苦)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는지요? 저는 26살의 젊은이지만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 진정된 삶을 살면서 인간의 삶을 조금도 떠나지 않는, 고(苦)를 조금이나 마떨쳐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지 여쭙니다.

답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되 힘이 없이 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우님의 육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죠? 그러면 더불어 같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왜 혼자 생각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공체요? 그럼 공체로서 공심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 자기가 생각했다, 자기가 살아간다, 자기가 힘들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냥 공심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공심으로 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독단으로 진정한 삶을 살고자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되 하지 말라 이거죠. 힘이 없이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물리가 터지지 않고 자꾸 관습에 얽매이게 되고, 하여튼 내가 살아야 하고 먹어야 산다는 그 착이 붙어서 영 헤어지질 못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을 다 떼어 갖더라도 착을 두지 마라! 는 겁니다. 네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공해서 너는 없다. 없으니까 그냥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 거니가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너의 주인한테 맡겨 놓아라. 좋게 인력을 해라 이겁니다. 인간의 정수에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는 얘기 종종 합니다만,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니가 꼬집어서 내가 힘들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자다 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세상이 복잡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토끼를 잡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선뜻 대답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말할 게 있다. 너 산으로 공부하러 가려면 육체 속에 있는 생명들 다 내놓고, 옷도 벗고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땅도 밟지 말고 모든 걸 너 혼자 한다니까 내놓고 너 혼자 해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끝에 고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하! 내 몸중에도 그렇고 일체가 둘이 아니게 같이 더불어 사는구나!' 하면서 그 도리를 깨우친 겁니다. 지켜워 할 것도 없고 내가 바로 너고 내가 나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안 간다 할 것도

지 않은 걸 알려면 네 마음부터 알고 했습니다. 네 마음을 내 뇌 보라, 네 마음이 막혔나 안 막혔나? 네 마음을 내 뇌 보려면 그것이 양쪽으로 막혔는지 두 쪽으로 났는지 알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내 놓을 수 없는 반면에 막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막히지 않았다는 거죠. 맘대로 이겁니다. 막히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막히지 않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계와 정신계가 한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 데 50%에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누고 싶고 대신하고 싶어

문 항상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알고 싶은 것도 없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언제부터인가 알고 싶어서 내면에 질문과 답을 구하던 욕구가 사라지고 이젠 그저 뭐가 나누고 싶고, 대신하고 싶고,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레 맡겨져서 무엇 위에도 존재하고 싶지 않으니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젠 저를 위한 질문과 답은 할 것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저 남들이나 잘됐으면 하는 생각과 사소한 것일지라도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그동안의 습관에서 나오는 그냥 살아가는 생활에서 도리에 맞지 않

하면 될 거를 그렇게 못 믿고 못 관하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가고 나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나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때로는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딱해서 그러지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련한 듯하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미련한 듯하게 무조건, 보편은 보는 대로, 벌써 부(富)인 자기 주인공과 자기의 둘이 아닐 때는 길에 지나가다가도 '아, 저건 안됐다' 이러면은 그냥 천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인공에 다 맡기고 안 맡기고도 없어요, 싹과 뿌리와 한데 붙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까지 되게끔 돼야겠지요. 눈으로

한다면 너도 나고 나도 너고, 네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이 네 능력이고, 네 생이 내 생이고 내 생이 네 생인 것인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둘 모여서, 체가 없는 마음들이 모여서 있다가 형성해서 살려니까 체가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체가 있는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겁을 돌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까지, 여기까지 개발되어 온 겁니다.

인간이라면 벌써 90%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무전자의 능력으로써, 이 무전자의 능력은 우리가 '주인공' 하면 전체 공생으로 한데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대 공생으로 한데 합쳐지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그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공기가 없어서 못 삽니다. 그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죠. 항처럼 돌아가면서, 에너지처럼 돌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호흡을 시켜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생(共生)을 하고 있으면 공심(公心)으로 또 돌아갑니다. 혼자 사는 게 없어요, 전부. 그래서 공심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그 공심은, 천차만별로 돼 있는 공심은 바로 즉 공생의 능력으로써, 공심으로써 그렇게 다양하게 천차만별로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진리이자 길입니다.

그러나 나 개별적인 마음과 상대의 마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주인공 자리에 다 몰아 넣을 때 용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른 이를 도울 일이라면 그 몸이 부지런히 뛰어 심부름하게 하고, 화합할 일이라면 그 마음의 온기가 두루 퍼져 모든 이의 마음에 감응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 모든 일을 들이고 내는 것이 오직 한 자리라는 거 그것만 아신다면 그대로 우리가 사는 길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잘 맡겨지지 않고 불안해요

문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느긋하게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까지도 주인공에 던지려고 해도 순간순간에 불췌불췌 안에서 불안감이 솟아 올라옵니다.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초연해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씩 하지 않고 주인공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요?

답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타고 내리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타면 내리고, 내리면 탄다는 것을 몰라서, 걸림 없이 돌아가는 줄을 몰라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50% 물질 세계의 되는 것만 알았지 그 물질 세계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데서 걸림 없이 돌아가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않아 천하없어도 마친가지입니다. 마음이 체가 없어서 팔리팔리 생산을 해서 현실로 나오게 하는 작업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 건데 그냥 욕심과 부질없는 급한 마음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되게 해서 좋은 일이라면 안되게 하'고, 되게 해서 좋은 일이라면 되게 해라! 하고 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가게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것도, 하게 해가

20면으로 계속

자기 것이라 생각 안하면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다 알게돼요

없구나! 하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랬듯이 생각으로서 자기가 지어서 업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착이 되고, 자기가 지어서 악행이 되고 자기가 생각을 지어서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도 불구하고

고 말이에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혼자 산다면 그렇게지만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무슨 물을 마셨다고 하고 물을 안 마셨다고 하고 이유가 붙습니까?

그래서 공생이면서 공심·공체·공용·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어디를 가도 착을 두지 말고, 어디에도 자비로써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스스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더 불어 입에 붙은 사랑이 아니라 아주 정직하게 실천하는 자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라는 생각을 안하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나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써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생·공심·공체·공용·공체·공식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참나에 손 하나를 들 수도 있고 손 하나를 내릴 수도 있듯이 마음으로써 슬기롭게 한 참나에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꼭 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는 회전을 못합니다. 미지수의 세계의 그 뜻을, 무(無)의 세계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움직여지지 않고 움직여질 수 있는, 손을 누르지 않고 누를 수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만이 유무에 걸리지 않을 텐데 우리는 (유)의 세계만 아니까 항상 벽이 생기고 고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방이 탁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풀어야 하나 이겁니다. 본래 막힌 것도 아닌데 왜 막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다 막히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 어지럽고, 물질 세계에서 살아 나온 관습에 의해서 관습, 인과, 업보, 유전으로 딱 뭉쳐서 돌아가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접근이 되지 않고 또는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죠. 전체가 같이 돌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사니까요. 우리가 한마음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포괄적인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 보이는 거지나 이파리가 나인 줄 알지 말고 정말 진실하게 뿌리에 서부터 가지까지, 이파리까지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를 역경 속에서 헤매고 사는 것이 뿌리가 있어야, 뿌리가 깊이 묻어져야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모두 그렇지 못한 까닭에 모든 것을 겪게 되는 것이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들을 다 그만 두고라도 이 공부를 해야 만이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의 이 세상 속에서 공생이면서 공심·공체·공용·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도리를 터득해서 자비로써 베풀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젊음이야 되길 바래요.



그림 · 최주현

“ 돌 아나게 볼 수 있고 돌 아난 행을 한다면 모두가 나 아님 없고 내 아픔 아님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하나도 버릴게 없고 자비롭게 살 수 있어 ”

는 행동을 하면 대책 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저 순리에 맞는 도리대로 살고 싶으며 공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찌하여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나누고 싶은 것 때문입니다. 그것도 욕심일까요?

답 어떤 사람은 내게 찾아와서 아휴! 나는 그냥 주인공을 찾아도 일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알았다고 그냥 그렇게 보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때는 '관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왜 관

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마음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되는 겁니다. 구경을 하면서도 벌써 천백 억 화신으로 나루면서 화해서 우주전체를 한 참나에 다 낼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쯤은 못하더라도 나와 남을 돌로 봐서는 안돼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돌로 보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하는 걸 가르쳐 주면은 쉽겠조. 왜? 전력을 있되 가슴이 안됐으니까 불안이 들어오거든요. 전기 줄, 내 전기 줄 하나만 가지고는 이쪽에 붙들어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같이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공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공심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자기네들이 공심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고 각자 자기 하나가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만 명이 일을 하면 쉬운데 이걸 자기 한 명이 그냥 혼자 하려고 하는 거 같죠. 만약 이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만 명의 능력과 한 명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만 명이 할 일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만 명이 같이 들고 만 명의 만 생이, 만 마음이 같이 들어간다고 봐 보세요. 그

가까운 안위를 보듯 고달픈 현실에 허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SIN 288쪽
값 6,000원
아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